

## 인사의 말씀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장 문연심

아름다운 단풍의 계절을 뒤로하며 어느덧 한해의 결실을 맺는 바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의 보람된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뉴스레터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학회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 인사드리며, 신입회원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육아지원학회는 육아지원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여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각적 학문 분야별 연구결과를 「동계·하계 연구소모임」과 「준계·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의 제 5대 집행부는 다양한 분야의 이사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육아지원과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화’, ‘융합화’, ‘선도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성을 고려한 포괄적 관점에서 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즉, 한국육아지원학회의 창립 취지에 맞도록 「영유아, 부모,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주제를 총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하계 연구 소모임은 『유아교사의 지속적인 자기성장 : 열정으로 가르치기 (A passion for teaching)』,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의 이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2013년 추계학술대회는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 부모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육아지원연구」는 2014년부터 연 4회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며, 학술적 연구 인프라 구축, 교육현장의 전문성 신장 및 새 정부의 육아지원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관련 연구물도 지속적으로 출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주요정책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학술활동 및 연구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육아지원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여성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적으로 육아지원정책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제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안정되어가는 동시에,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적 화합과 정착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유아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이러한 최근 소식과 자료들이 회원님들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한층 더 도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육아지원학회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더욱 활성화 되어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방향 선도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의 회원님들께서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이윤경(서원대학교 교수, 한국육아지원학회 수석부회장)

요즘 선진국에서는 20세기 말부터 조용히 진행된 ‘유아교육혁명’을 마무리하고 유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범위 확대, 유아교육 담당체제의 일원화, 유아교육의 초등학교와의 연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제 운영과 비용 인하,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배려 등 국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유아교육을 할 것 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지식정보화세계 화시대를 맞아 사회경제활동인구의 급증에 따른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궁극적 국가경쟁 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양질의 유아교육에 대한 최우선적 필요성에 대한 혁명적 인식 전환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아기는 인적자원 투자시기 대비 수익률 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생애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국가 인재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적기이 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도 이러한 글로벌 시대의 추세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 진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조직된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 대하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였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이다. 우선 교육부가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배 경을 알아보면,

첫째,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2006년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무상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였고, UNESCO는 2011년에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를 개정하여 영유아교육의 범위와 경계를 확장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함이다. 2013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다니는 모든 만3~5세 유아들은 누리과정에 의해 같은 교육·보육과정의 내용을 배우고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학비지원 재원은 통 합되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 체제는 같은 연령의 유아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여전히 미흡하다.

셋째, 2009년 12월에 수립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법제화 된 세부 과제를 2013년부터는 본 격적으로 추진하여 선진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유아교육법」의 개정(2012.1.26. 공포, 2012.4.27. 시행)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 5년마다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정책분야와 핵심과제의 내용은 유아교육의 기회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의 5개 영역과 각 영역별 5개 총 25개의 세부과제로 되어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중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으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과 유치원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통합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협업과제로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교육비 걱정 없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로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계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3년 3월부터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학부모들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비용이 정부 지원의 22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누리과정 학비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을 위해 「유아교육법」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신·증설되는 유치원에 배치될 교원 대상 연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법, 학급 담임업무 수행 등의 내용 등으로 지속적으로 직무 연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이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과정과 수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의 운영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현장 정착 및 충실한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시스템 구축과 함께 유치원 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른 유아교육 기회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의 경감과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의 돌봄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후 과정 운영이다. 현재 하루 3-6시간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시간은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과 맞물려 교육과정 정상화 및 관리감독 문제, 학부모 방과후 과정 비용부담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교육과정의 심화나 편안한 돌봄보다는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무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방과후 과정에 늘어나는 원아를 위한 교원의 추가지원 업무의 과중과 물리적 공간의 부족 및 지역별, 설립유형별 방과후 과정 교사 자격의 편차 문제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한 5시간으로 조정하고(이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돌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누리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참여,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연계한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방과후 과정은 돌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유아발달에 적합한 운영형태와 방법등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의 하나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교육과정 및 학비지원 체제와 재원은 통합되었으나 동일한 서비스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그동안 '0-5세 교육과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위해 재정 투입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등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로 인한 이용불편, 부모부담, 재정지원 및 서비스 질 수준 차이, 맞벌이 가수 차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유아가 원하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 및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이러한 취지로 2013년 3월 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유보통합 모델 도출 및 시범사업 실시 사항을 점검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실무조정위원회 개최, 유보통합모델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합모델개발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러한 추진 체계에 따라 2014년에는 유보통합 모델의 시범지역 적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생애초기 부서의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확대 및 책임성 증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앞으로도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기를 기대해 본다.

1 학회 활동 보고

1. 201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주 제 : **유아교육의 미학적 이해와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26일(금) 13:30~ 19:3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 B동 B153호
- 후 원 : 교육과학연구소, 교문사, 공동체, 양서원, 육아방송, 창지사

기조강연 - 예술적교육

조용기(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주제강연 - 누리과정의 미학적 변주 : 수업, 놀이, 그리고 예술

임부연(부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시간	1분과(교육관B동 151호) 사회: 조인경 (예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분과(교육관A동 414호) 사회: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분과(교육관 B동 461호) 사회: 박예경 (신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05 ~ 16:25	국악장단을 리듬패턴으로 활용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윤혜자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학과 강사)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교사의 프로그램 평가 손수연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유아교육과정의 심미화를 위한 실험연구 박향원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16:30 ~ 16:50	미술활동을 활용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미양 (동실유지원 원장)	부모참여의 다양한 관점: 미국 내 한국인 단기 이주자 가정의 부모참여에 대한 재역석 정혜옥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유아교사들의 학습공동체에 관한 연구 : 심미교육을 중심으로 최남정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한국육아지원학회 제5대 회장으로 문연심교수(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취임

### 2. 2013년 정기 이사회개최

- 주 요 안 건 : 한국육아지원학회 제5대 회장단 및 임원진 상건례 및 2013년 사업계획관련건
- 일시 및 장소 : 2013. 6. 29(토) 12:00 설가온

### 3. 2013년 연구소모임

#### 1) 동계 연구소모임

- 47차 :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I」  
(2013년 1월 30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B 146호)
- 48차 :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이론과 실제 II」  
(2013년 2월 6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6호)

#### 2) 하계 연구소모임

- 49차 : 「유아교사의 지속적 성장」  
(2013년 7월 18일,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
- 50차 :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의 이해」  
(2013년 7월 23일,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

#### 4. 2013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 주 제 : **현대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다각적 접근: 부모의 역량강화**
- 일시 및 장소: 2013년 10월 25일(금) 13:30~ 19:30, 강남대학교 살롱관 B1 108호

**기조강연** : 사유하는 부모가 희망의 교육을 만든다  
고병현(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주제강연 I** : 현대 부모역할에 대한 다각적 이해와 지원  
전우경(중앙대학교 지식산업교육원 주임교수)

**주제강연 II** :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정책  
김은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Young Scholar Session

시간	1분과(살롱관 308호) 사회: 조화연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분과(살롱관 309호) 사회: 정가운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분과(살롱관 408호) 사회: 김현자 (두원공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6:30 ~ 16:55	<b>유치원 교사의 교육이데올로기의 구조 및 기능</b> 김용환 (대일유치원 원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미술치료학과 겸임교수)	<b>영식적·비영식적 교수를 통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심진법의 이해: 미국과 한국의 비교연구</b> 위수정 (퍼듀대학교 칼류멧 캠퍼스 행동과학과 유아발달 프로그램 조교수)	<b>교육에서의 기록화: 과정을 중심으로</b> 강진주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16:55 ~ 17:20	<b>Intracultural varia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b> 황은진 (송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	<b>유아교육기관의 질이 5세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에 미치는 영향</b> 김민정 (가천대학교 세살마을 연구원 연구교수)	<b>‘육아지원연구’ 연구윤리 및 투고 방법</b>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5. 「육아지원연구」(학진등재지) 2회(4.10월)발간

- **8권 1호(4월말) 총12편 논문 발간**
  - 미국 공립 pre-kindergarten 교사의 수학교육내용 지식과 수학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연구
  - 어린이집-가정 연계를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 활동이 놀이신념 및 영아-아버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및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 외로움과의 관계
  - 협동적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 반응중심 접근법에 기초한 문학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음악 감상을 통한 신체활동이 종일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임신기 부부의 태교실천에 관한 인식
  - 취학 전 기관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만족도 및 정서문제



- 어린이집 만 2세 학급 영아의 하루 일과에 대한 연구
- 어머니와 만 2세 영아의 반응성 및 반응성간의 관계
-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어린이집교사의 셀프리더십, 조직시민행동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

• 8권 2호(10월말) 총 10편 논문 발간

- 유아교사의 문화성향이 다문화교수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매개효과.
- 곁음마기 자녀 기질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그들의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유아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 예비유아교사의 성취목표지향성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 예비유아교사의 사회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사회교과교육학 지식 및 교사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이미지.
- 유치원교사의 변인에 따른 음악적 개념이해 및 이해수준과 음악적 개념에 대한 자기인식과 실제이해의 차이.
- 교사자질로서 인간관계 능력에 대한 고찰: 예비유아교사를 중심으로.
-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양육경험, 자녀가치, 자녀기대 간의 관계.
- 아동의 자전적 사실기억 및 해석기억의 발달과 어머니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연구.

2 회 원 동 정

1. 김현지교수님(이사)

우송정보대학 유아교육과에서 2013년 9월1일부터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임용되셨음.

2. 신상인 원장님

2013년 9월 1일자 공립단설 서울신우유치원 원장으로 승진발령(신우유치원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498)

3. 강숙현 교수님

<저서 출판>

강숙현 외(김정아, 김희정, 윤숙희, 이은희 ) 공저. 2013. 8.10. [놀이지도] 학지사.

4. 박은혜, 이진화, 고동섭, 최혜윤 (공역). 2013. 1.15 [유아교육에서 실행연구하기] 창지사.

(2009).Doing action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